

국내 첫 자체제작 '메타버스 맞춤형 건강상담실' 열렸다

등록 2022.05.27 10:05:59

기사내용 요약

경희의료원 메타버스 활용 매월 2회 이상 건강상담
공공공무원·소방·경찰공무원에서 일반인으로 확대
비대면 시닥터로 기혈상태 평가 후 일대일 맞춤상담



[서울=뉴스시스]경희의료원은 직접 기획·제작한 메타버스 플랫폼 '게더타운-경희의료원 가상 컨벤션센터(KHMC Convention Center)'에 '가상 야외건강상담실: 경희 한슬림'을 추가로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. 한슬림 건강상담이 이뤄지는 모습. (사진= 경희의료원 제공) 2022.05.27

[서울=뉴스시스] 백영미 기자 =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메타버스(3차원 가상세계) 플랫폼에 접속해 편리하게 '일대일 맞춤형 건강상담'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첫 자체 제작 '메타버스 건강상담실'이 문을 열었다.

경희의료원은 직접 기획·제작한 메타버스 플랫폼 '게더타운-경희의료원 가상 컨벤션센터(KHMC Convention Center)'에 '가상 야외건강상담실: 경희 한슬림'을 추가로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.

'게더타운 경희 한슬림 건강상담'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(AI)을 활용해 개인별 신체 기혈(氣血)상태를 평가하는 건강 설문 시스템 '경희 카이닥(KAIDOC-Korean AI Doctor)'을 통한 일대일 맞춤형 건강상담이 특징이다. 경희 카이닥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이재동 학장(경희대한방병원 침구과·비만센터 교수)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경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이승룡 교수팀의 기술지원을 받아 개발했다.

한슬림 건강상담은 이 학장을 주축으로 이수지·홍예진 교수가 함께 할 예정이다. 한방 자가진단 솔루션인 경희 카이닥은 심도 있는 일대일 맞춤 상담 뿐 아니라 평소 건강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다. 한슬림 건강상담 한편엔 이 학장의 건강정보 영상과 자료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'한슬림 아카이브'도 구축돼 있어

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게더타운에 접속해 시청할 수 있다.

한슬림 건강상담은 ESG(환경·사회·지배구조)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지난 26일 '척추관절 통증'을 주제로 공무원연금공단 상록봉사자를 대상으로 약 90분 간 처음으로 운영됐다. 향후 매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'메타버스 건강상담'이 이뤄질 예정이다.

경희의료원은 공무원연금공단과 협력해 공상공무원과 봉사자, 소방·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후 일반인까지 확대할 예정이다.

이 학장은 "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메타버스 건강상담을 추진하게 됐다"면서 "시범운영을 거친 후 일반인들로 건강상담 대상을 확대해 건강관리와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"고 강조했다.

송도영 공무원연금공단 고객지원본부장은 "코로나19로 비대면 교류가 우리의 일상에 젖어든 것 같다"면서 "경희의료원의 의학, 치의학, 한의학 분야의 다양한 의료진 인프라를 통해 1년 이상 유튜브 라이브 상담을 함께 진행해 왔는데,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폭넓은 연령대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건강상담으로도 확장돼 의미가 있다"고 전했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